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2월(제57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I\_Choose\_OITA #오이타\_유학\_매력\_포인트

## 유학생이 전하는 오이타의 매력



우리 현에서는 해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유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유학 생활 및 매력 소개 영상을 아래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우리 현 내 소재 대학, 전문학교에 유학 중인 개인 및 단체 200여명이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아래 QR 코드를 스캔, 또는 링크를 검색하시면 세계 각국 출신의 유학생이 전하는 오이타 유학의 매력이 담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사이트 링크 ▼  
<https://sns.ichooseoita.com>



현 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직접 나서는 이들

## 일본어교실 자원봉사자 연수 개최



지난해 말 기준 우리 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13,061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1년 전에 비해 800명 정도 줄어들었으나, 2015년 대비 2,500명이 증가하였으며 출신 국적 및 지역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현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법률 및 지자체별 규정, 재해 시 피난 정보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일본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 내에는 총 21개의 일본어교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본어 학습, 지역 주민과의 교류의 장, 상담 창구 등으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어교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2월에는 나카쓰시에서, 올해 1~2월에는 오이타시에서 각 6회씩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APU)' 일본어교육센터장 '혼다 아키코(本田明子)'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초급, 고급 연수를 각 3회씩 진행하였으며 일본어교실의 중요성, 일본어교수법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총 4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등 뜨거운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추가 연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본어교실을 지원하여 외국인 주민도 살기 좋은 오이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2월(제57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돌아온 하치만나다궁 기쓰키시 杵築市

### - 하치만나다궁(八幡奈多宮)

하치만나다궁은 기쓰키시 동부 모래사장에 위치한 신사입니다. 해안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에 도리이(鳥居)가 있는 이 신사는 1,300년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사신궁(宇佐神宮)과 관계가 깊어 오래전부터 기도장소로 유명하답니다.

### - 도리이 재건 프로젝트 ※모집 종료※



지난해 9월, 태풍 10호의 영향으로 하치만나다궁의 상징인 도리이와 석조 울타리가 유실되었습니다. 도리이는 기둥 아래쪽이 완전히 부러져 파도에 떠밀려갔으나 다행히 신사 근처의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과소화 문제를 겪고 있는 마을의 힘만으로는 도리이를 재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새로이 정착한 이들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펀

딩(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일반 개인들로부터 투자 자금 따위를 모으는 방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된 이 펀딩은 해외 후원자를 포함, 총 287명이 후원하여 오픈 29일만에 목표 금액이었던 200만엔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금으로 재건, 복구 작업은 순조로이 진행되어 지난 1월 24일에는 완공식도 개최하였습니다.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치만나다궁 근처에는 지역 주민의 노력으로 소나무숲 산책길이 재정비되었으며, 비치 하우스(먹거리 판매대, 스탠드업 패들보딩(SUP) 체험장)를 개조한 숙박시설이 생기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꼭 놀러오세요. 기쓰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치만나다궁 홍보영상  
<https://youtu.be/xDpodMFJqqM>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2월(제57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가장 가까워서, 가장 많은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곳  
 **다카사키야마 자연동물원** 오이타시

오이타현에 부임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여행은커녕 맛집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중순 '왓츠업 오이타'의 취재를 다녀왔다. 오이타에 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외출을 한 셈이었다. 앞으로 매달 오이타현의 매력적인 장소와 멋진 일들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2월호에서는 '다카사키야마 자연동물원(高崎山自然動物園)'을 소개하려 한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동물을 좋아하고, 또 상사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곳은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동물원이 아니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자연동물원'이기에, 놀랍게도 '자연에 사는' 원숭이들을 관리하는 곳이다. 메인이 원숭이인 이 동물원은 오이타시와 벳푸시 사이에 있는 '다카사키야마'에 있다. 일명 '원숭이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에는 일본 센고쿠 시대부터 원숭이가 서식하기 시작했다. 메이지 시대에는 600여마리나 있었고, 화재 등으로 일시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기도 했으나, 태평양 전쟁 이후로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그런데 개체수가 늘어나자, 원숭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 산 아래로 내려와 산 인근에 사는 민가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 이에 당시 오이타 시장이었던 '우에다(上田)'가 원숭이를 먹이로 길들여, 관광사업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냈고, 이는 다카사키야마 자연동물원의 시초가 되었다.

산에는 세 무리(A, B, C군)의 원숭이가 살고 있는데, A군은 지난 2002년에 완전히 멸종하고, 지금은 B, C군만 서식하고 있다. 산에도 열매나 풀, 벌레 등 원숭이들의 먹이는 있지만, 매일 오전, 오후 동물원의 '원숭이광장(サル寄せ場)'에는 원숭이들이 먹이를 먹으러 산에서 내려온다. 주로 오전 8시경에는 C군이, 오후 1시경에는 B군이 내려와 교대시간에 맞추어 동물원을 방문하면 두 무리를 모두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매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리는 '원숭이 쇼(あさるのチャレンジコーナー)'에서는 먹이를 먹기 위해 조련된 똑똑한 원숭이들을 볼 수 있다.

또한 각 무리의 원숭이들이 산에서 내려오면 30분 간격으로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로 먹이로는 옥수수나 고구마 등을 주는데, 사육사가 옥수수를 와르르 뿌리면 수많은 원숭이가 우르르 몰려와 바쁘게 주워 먹는 모습이 정말 정신이 없다. 이번에는 보지 못했지만 사육사의 이야기로는, 고구마를 수레에 싣고 사육사가 달리면 원숭이들이 열심히 쫓아오면서 수레에서 떨어지는 고구마를 주워먹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라고 한다.

야생 원숭이가 자유로이 돌아다니고, 정말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곳이기에, 동물원 곳곳에는 경고문구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2월(제57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가 가득했다. "원숭이를 놀리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눈을 마주치지 마시오, 먹이를 주지 마시오". 눈을 이곳이 바라보면 원숭이는 싸움을 건다고 착각하여 덤벼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수많은 원숭이들을 봤을 때 얼마나 놀라고 조심했는지 모른다.

사진을 찍고 싶는데 정면에서 찍으면 눈을 마주칠 수밖에 없어서, 죄다 뒷모습만 찍었다. 빠른 속도로 원숭이가 내 옆을 지나가면 화들짝 놀라 한동안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기도 했다. 똑똑한 원숭이들이라 막 달려들지는 않지만,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사진으로만 보는 게 좋을 듯하다.



참고로 한국에는 원숭이가 서식하지 않는다. 과거 원숭이가 중국, 한국을 거쳐 일본까지 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원숭이가 서식하지 않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반도가 원숭이가 살기에는 너무 추운 날씨라는 설이 대표적이다. 간혹 한국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원숭이들은 일본원숭이이며, 일본원숭이는 주로 열대 우림지역에 서식하는 원숭이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추운 지역에서도 살 수 있는 종이라고 한다. 이들의 생존 한계선은 홋카이도 바로 아래, 혼슈의 가장 북쪽인 아오모리 지역이다. 그래서 일본의 추운 지방으로 여행을 가면 온천에 들어가 있는 원숭이들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현 공식 관광사이트에 따르면 오이타 관광 명소 TOP3로 벳푸 온천, 다카사키야마 자연동물원, 유휴다케를 꼽는다. 오이타에는 온천만 있다는 게 아니

라는 사실을 나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특히 봄 시즌에는 출산기라 아기 원숭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니 동물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와보면 좋을 듯하다. 또한, 동물원에 오기 전 반대편 건물에 있는 자료실에서 동물원의 개요와 원숭이들의 정보를 볼 수 있으니 먼저 둘러보고, 동물원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 - 다카사키야마 자연동물원(高崎山自然動物園)

주소 : 大分県大分市神崎3098-1 (〒870-0802)  
운영시간 : 09:00~17:00(입장마감 16:30,연중무휴)  
이용요금 : 어른 520엔, 청소년 520엔,  
어린이 260엔 (단체요금 홈페이지 참조)  
문의 전화 : 097-532-5010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pu-no314@pref.oita.jp)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2월(제5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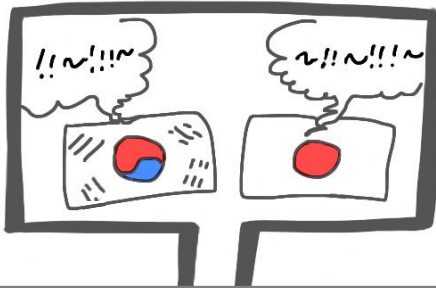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노지 in 오이타

1화

때는 2019년 여름,



당시 전직장에서 하던  
내 한일교류사업이 취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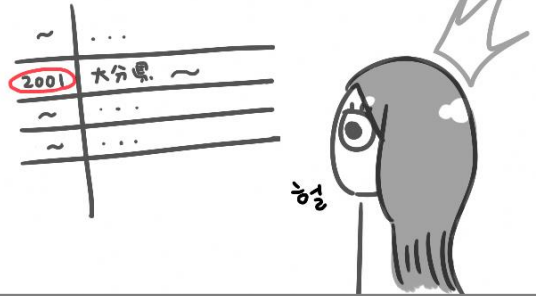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맞지않아  
그런거라함에도 쉽게 무너지는  
우호관계에  
참으로 허탈감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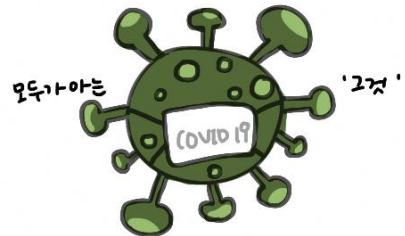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호교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CIR에 지원했고



운이 좋아 지원한해에 합격할수있었다.



하지만 하루이틀 출국일이 밀리더니  
도일 예정일은 자꾸만 기약없어졌고,



그렇게 기다린지 8개월이 지난어느날,  
담당자로부터 카톡 한통을 받게된다..



카톡 보자마자  
라탄 만들던거  
바로 내똥덩이임  
ㅋㅋ